

## 음장(音長) 및 성조(聲調)

이상억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의 운율적 특징을 음성학적으로 보면 소리의 3요소인 길이, 높낮이, 세기에 따라 각각 음장(length), 성조(tone)와 억양(intonation), 강세(stress) 액센트의 3가지 특징을 관찰하게 된다. 그러나 음운론적으로 보면 국어의 경우 현대 표준어에서의 음장, 중세국어에서의 성조나 현대 동부 방언에서의 음조(pitch) 내지 음고(音高)만이 운율적 자질(prosodic feature)로 각기 주목되는 특징이다. 국어에서 강세는 음운론적으로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3가지 운율적 자질은 한 언어에서 한 가지씩만 음운론적 기능을 하고, 나머지는 감정 표현이나 의미상 초점 표현을 하는 잉여적 기능의 표현적 자질(expressive feature)이 된다. 국어에서 강세는 언어에 리듬을 주거나 경계를 짓거나 초점을 강조하는 부차적 기능으로 쓰여 음운론적 변별력까지는 얻지 못하고 있다. 억양은 문장 전체의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의 문형에 따라 모든 언어에 다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여기서는 음운론적 기능 위주로 음장과 성조/음고의 경우만을 주로 다룬다.

## 1. 음 장

현대 국어(서울말을 토대로 한 표준어)는 자음과 모음 이외에 운소(韻素 prosodeme)로서 음장(音長 length)을 가지고 있다. 국어 사전에서는 장음을 보일 때 장모음을 가진 음절 뒤에 ‘:’나 음절 위에 ‘-’로 표시하여 단음과 구별한다. 음장에 의해 최소대립어를 이루는 예를 몇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                          |
|---------------------|--------------------------|
| a. 눈[眼]/눈:[雪]       | b. 돌[週]/돌:[石]            |
| c. 말[馬]/말:[言]       | d. 못[釘]/못:[不能]           |
| e. 발[足]/발:[簾]       | f. 밤[夜]/밤:[粟]            |
| g. 배[船, 梨, 腹]/배:[倍] | h. 병[瓶]/병:[病]            |
| i. 섬[石]/섬:[島]       | j. 열[熱]/열:[十]            |
| k. 일[一]/일:[事]       | l. 되다[become]/되:다[thick] |
| m. 사과[沙果]/사:과[謝過]   | n. 사기[沙器, 詐欺]/사:기[士氣]    |
| o. 영감[靈感]/영:감[令監]   | p. 위선[爲先]/위:선[僞善]        |
| q. 적다[記]/적:다[少]     | r. 제비[選]/제:비[燕]          |
| s. 그리다[慕]/그:리다[畫]   |                          |

위 예들에서 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의 10개가 모두 장, 단모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음장이 변별력을 가지는 것은 현재 서울말과 중부방언의 제1음절에서만이다. 제2음절 이하에서는 장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즉, ‘첫눈, 거짓말, 알밤’에서는 ‘눈, 말, 밤’은 모두 단모음으로 발음된다. 다만 ‘선:남(善男) 선:녀(善女)’의 경우처럼 한 단어의 뒷 부분이 둘째 번 단어로 인식될 때는 흔히 장음을 유지한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는 점차 제1음절에서조차 음장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말을 위시한 모든 방언에서 음장의 음소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다.

이제부터는 단모음화와 장모음화로 구별을 일으키는 음장의 경우를 살펴 보자.

1. 단모음화 : 1) 기저에서 장모음을 갖는 용언 어간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모음 음장 [ — ]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단모음으로 실현된다.

(옷을) 께다, 께지, 께고, 께어,

(길을) 께다, 께지, 께고, 께어,

(불에) 께다, 께지, 께고, 께워,

체언의 경우에는 단모음화 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例1), 용언의 경우에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단모음화 규칙에 적용되지 않고 기저의 음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예들도 있다(例2). 例1. 께(과일), 께이, 께을, 께으로, 께만, 께도; 께(주름), 께이, 께은, 께을, 께로, 께만, 께도; 셋(3), 셋이, 셋은, 셋을, 셋으로, 셋만, 셋도. 例2. 께다, 께고, 께지, 께어, 께으니; 께다, 께고, 께지, 께어, 께으니; 께다, 께고, 께지, 께어, 께니.

2) 장모음의 용언 어간에서 만들어진 파생명사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파생접미사 앞에서 그 어간이 단모음으로 실현되지만(例1), 장모음의 용언 어간에서 만들어진 파생부사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부사화접미사 앞에서도 그 어간은 단모음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장모음 어간이 그대로 실현된다(例2). 例1. 께다 > 더워, 께다 > 떨어, 께다 > 털이개, 께다 > 참음, 웃다 > 웃음, 께다 > 께음. 例2. 께다 > 께이, 께다 > 께이, 께다 > 고이, 께다 > 께이.

3) 기저에 장모음을 갖는 용언의 어간에 사동접미사나 피동접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되면 그 어간은 단모음으로 실현된다.

例. 께다 → 께기다, 께다 → 께기다, 웃다 → 웃기다, 알다 → 알리다,  
 께다 → 께리다, 께다 → 께히다, 께다 → 께기다.

2. 장모음화 : 1) w-활음화나 y-활음화를 경험할 때, 각각 두 음절에 할당되어 실현되던 두 모음은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비음절화를 거치게 된다. 활음화의 경우 비음절화에 따른 시간상의 손실이 활음을 형성한 음절의 장모음화를 통해 보상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활음화 현상이 일어날 때 비음절화에 의한 시간의 손실이 해당 음절의 장모음화를 통하여 실현된다.

例1. w-활음화현상과 장모음화 (꿈을) 꾸-+-어: 꾸어[kkuə] →  $\bar{\text{꾸}}$   
-[kkwə:].

例2. y-활음화현상과 장모음화 (반지를) 끼-+-어: 끼어[kkiə] →  $\bar{\text{끼}}$   
-[kkyə:].

단, y-활음화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개자음이 [i]모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장모음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경우에 y-활음화현상에 의해 형성된 y는 구개자음 뒤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곧바로 탈락해 버리고 단모음만 실현된다.

例. (짐을) 지-+-어: 지어[ciə] → 저: 저[cə], (사람을) 치-+-어: 치어[chiə] → 처: 처[chə], (맛이) 시-+-어: 시어[syia] → 셔: 셔[syə].

2) 형태소 내부에서 고모음(‘우’나 ‘이’) 탈락이 이루어져 재구조화된 어간형들도 장모음으로 실현된다.

例. 깨우다> $\bar{\text{깨}}$ 다(깨어 →  $\bar{\text{깨}}$ ), 게우다> $\bar{\text{게}}$ 다(게어 →  $\bar{\text{게}}$ ), 외우다> $\bar{\text{외}}$ 다(외어 →  $\bar{\text{외}}$ ), 매이다> $\bar{\text{매}}$ 다(매어 →  $\bar{\text{매}}$ ), 고이다> $\bar{\text{괴}}$ 다(괴어 →  $\bar{\text{괴}}$ ).

3) ‘ㅅ’불규칙용언과 ‘ㅎ’규칙용언의 어간에 ‘으’계 접사가 결합되면, 어간 말 ‘ㅅ’이나 ‘ㅎ’은 탈락하는데 다시 모음끼리 만나게 됨으로써 모음충돌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 ‘으’계 접사의 ‘으’가 탈락하게 되고, ‘으’가 탈락하면 잃어버린 음절에 대한 시간적 보상으로 장모음화가 일어난다. 이 경우, 어간 말 ‘ㅅ’이나 ‘ㅎ’의 탈락이 일차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개음절 어간형을 갖는 용언에 ‘으’계 접사가 결합하여 생기게 되는 모음충돌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으’계 접사의 ‘으’가 탈락하더라도 이 때에는 장모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例.  $\bar{\text{곳}}\text{-+}\text{-으면} \rangle \text{그으면} \rightarrow \bar{\text{그}}\text{면}$ ,  $\bar{\text{종}}\text{-+}\text{-으면} \rangle \text{조으면} \rightarrow \bar{\text{조}}\text{면}$ . cf.  $\bar{\text{꾸}}$

$\text{+}\text{-으면} \rangle \bar{\text{꾸}}\text{면}$ ,  $\bar{\text{꾸}}\text{-+}\text{-으면} \rangle \bar{\text{꾸}}\text{면}$ .

장단음 구별은 아래의 표에 보이듯이 실제로 사전들(1-9)과 서울말 사용자들(10~14)을 통해 조사해 보면 쉽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세기에는 이미 음장의 구별이 둔화되어서 다음 표에서 보듯이 “장음(14) : 단음(0)으로” 반례 없이 깨끗이 구별되는 예가 임의로 뽑은 32예 중 6개(1. 읊 7. 파리, 9. 감-, 11. 꺼리-, 13. 베-, 17. 참-)밖에 없다. —은 장음, ~은 단음, ㄴ은 장단양용, ?은 장단불명, 특히 이희승 선생님은 사전(6)과 본인(10) 발음 간에 9개나 서로 장단이 다르게 된 점이 이미 음장이 동요된 현상을 보인다 하였다.



## 2. 성 조

현재까지 국어에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 현상을 다루는 논문에서 집필자의 견해에 따라 우선 용어가 꽤 다르게 쓰여 왔다. 혹자는 중세국어나 현대 경상방언을 다 통틀어 성조(tone)라는 용어를 써 왔고, 또 일부 학자는 중국어와 같은 성조언어(true tone languages)로 중세국어를, 일본어와 같은 음고언어(pitch-accent languages)로 경상방언을 분류하였다. (본고는 ‘음장’과 짝을 잘 이루려는 취지에서, pitch를 ‘음고’로 번역해 보았는데, 학자에 따라 광범위하게 경상 방언에서 일본어까지를 모두 포괄해서 ‘음조’로 다룬 논문들도 있다.)

위의 분류에 따라 성조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부터 명백히 하겠다. 중세국어는 다음과 같은 동음이의어에서 분절음은 같으나 성조만을 달리 한다(저조(平聲) : ` , 고조(去聲) : `).

손 sún 客 / sún 手, 비 p^ly 梨 / p^ly 船·腹, 버리-p^rí-棄 / p^rì-割, 가지 kàcí 種 / kàcí 轄 / kàcí 枝

이러한 성조만에 의한 최소대립어들이 있는 현상은 마치 중국 북경어에서 음(陰)평성 55 ma<sup>1</sup> 媽, fāng 方, 양평성 35 ma<sup>2</sup> 麻, fāng 房, 상성 214 ma<sup>3</sup> 馬, fāng 紡, 거성 51 ma<sup>4</sup> 罵, fāng 放 등이 구별되는 것과 같다.

또 중세국어에는 성조언어에 흔히 나타나는 성조 규칙들이 있어서, 적어도 5개의 형태음소론적 성조 규칙과 2개의 음성적 성조 규칙이 있다. 결국 중세국어는 각 음절별로 고유 성조를 가질 수 있는 중국어나 Yoruba어와 같은 부류에 들며, 또 그런 부류에 특유한 성조 규칙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일본어, Ijo어와 같이 음고언어에 속하는 것으로 경상, 함경 그리고 영동 방언을 분류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상방언	함남방언	cf. 중세국어
kka má kwu-ka	ka makwí ka	kàmàkwóy

(‘가마괴’ 자체가 주격)

위의 예에서 보이듯이 두 방언형은 □□ 라는 음고형(pitch pattern)이 각기 다른 위치에 걸리는 것만 차이점일 뿐, 그 음고형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 사실은 다음 예를 더 보아도 확인된다.

경상방언	함남방언
ka síl mokwu-ka	ka al mó ki-ka

위와 같이 일정한 음고형을 가진 언어를 음고언어로 분류해야 한다.

다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방점 또는 성점이라고 부르는 중세국어 자료상의 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과연 방점이 고저와만 관계가 있는가, 또는 음강과도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방점은 고저 즉 성조만 표시했던 것이라는 해석이 가장 바람직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위 글의 성조/음고는 분포의 범위에 따라, 중세국어 시기에는 전국에 성조가 일색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음 시기의 방언들에서는 경상방언이 압도적으로 음고가 보이고 (약간의 전라도 지역, 즉 광양도 포함), 영동방언 지역을 연결 통로로 하여 함경방언에서도 시종 음고가 유지되어 있다. 즉 한반도를 세로로 나눠 동부 절반에는 음고형 방언이 자리 잡고 있는 형상이다.

중세국어와 함경방언과 경상방언은 이 순서대로 성조의 옛 모습과 중간적 형태와 현대적 음고형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의 3부류의 어느 한 가지에만 관련시키기 어려운 형태도 있겠으나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 또 경상방언과 일본어를 비교 연구한 업적들도 유형론적으로 흥미롭다.

그러면 위의 3부류 중 첫째로서 방점으로 성조를 표시한 중세국어부터 보자. 앞서 보인 평성(0점)과 거성(1점) 외에 상성(2점)이 있는데, 성조에 대한 현대적 연구에서 “저고의 복합성조”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합모음의 연구에서 “부터 + ·이)부 :테” 등의 예가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어서 성조의 종류, 성질 및 체언의 음절수별 성조형 고찰, 성조 규칙 등에 대한 좀더 상세한 논란이 필요하나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다 할 지면이 없다.

함경방언은 L, H, R의 3음고를 가진 함남의 단천, 함북의 길주, 학생의 방언(아래의 1)과 L, H의 2음고를 가진 그 밖의 지역의 방언(아래의 2)으로 나누어진다. R은 경북방언의 R에 대응하는데 L, H의 2음고만 가진 지역에서는 H로 나타난다. ‘말[馬, 斗, 言]이 많다.’라는 발화는 각각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음소표시 :	마 리 만 타(馬)	마 리 만 타(斗)	마 리 만 타(言)
1.	음고표시 :	1 3 2-3 1	3 1 2-3 1	2-3 1 2-3 1
	음 고 형 :	L H R L	H L R L	R L R L
2.	음고표시 :	1 3 3 1	3 1 3 1	3 1 3 1
	음 고 형 :	L H H L	H L H L	H L H L

함경방언은 중세국어와의 성조의 대응이 꽤 규칙적이다. 중세국어에서 어절 안에 맨 처음 상성이나 거성이 나타나는 음절까지는 평성-L, 거성-H, 상성-R(R이 나타나지 않는 방언에서는 H)의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그 이하의 음절은 모두 L을 가지게 된다.

경북방언에는 대체로 L, H, R의 세 음고가 있다. 경북방언의 한 예로 경북 금릉방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소표시 :	마 리 만 타(馬)	마 리 만 타(斗)	마 리 만 타(言)
	음고표시 :	3 1 1-2 3	3 3 1-2 3	1-2 3 1-2 3
	음 고 형 :	H L R H	H H R H	R H R H

음고를 3등분하여 낮은 소리를 1로, 높은 소리를 3으로 표기하면 대체로 고조는 3으로, 저조는 1로, 상승조는 1-2로 나타난다. 상승조는 2음고의 결합이므로 고조, 저조보다 더 길게 발음된다. 즉 상승조는 항상 장음을 수반한다. 상승조를 고조, 저조와 변별하는 요소는 음고이고 음장은 잉여적인 것이다.

또 이 방언에서 각 어절에 실현되는 음고형(音高型)의 연결은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이 3음고가 3음절 어절에 실현되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27가지(=3×3×3)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LHL, HHL, HLL, RHL의 4가지만 나타난다. 즉 3음절 어절에는 다음과 같은 배열제약이 존재하는 것이다. 마지막 음절은 항상 L이다. 둘째 음절이 H이면 첫 음절에 L, H, R이 자유로이 올 수 있다. 둘째 음절이 L이면 첫 음절은 항상 H이다. R은 첫 음절에만 올 수 있다. 이러한 제약에 따른 가능한 배열의 유형을 음고형이라 한다. 3음절 어절은 위와 같은 4가지 음고형을 가지는 것이다.

음절수별로 가능한 음고형들을 조사하면 모두 다음 4가지 부류로 묶인다.

1. L로 시작하는 음고형(L형) : L, LH, LHL, LLHL, LLLHL,...
2. H(H)로 시작하는 음고형(HH형) : H, HH, HHL, HHLL, HHLLL, ...
3. H(L)로 시작하는 음고형(HL형) : H, HL, HLL, HLLL, HLLLL, ...
4. R로 시작하는 음고형(R형) : R, RH, RHL, RHLL, RHLLL, ...

둘째 음절까지의 음고만 알면 셋째 음절 이하의 음고는 모두 예측할 수 있으므로 셋째 음절 이하의 음고는 비변별적임을 알 수 있다.

경남방언에는 대체로 L, H의 2음고가 있다.

음소표시 :	마	리	만	타(馬)	마	리	만	타(斗)	마	리	만	타(言)
음고표시 :	3	1	1	2	3	3	1	2	1	2	1	2
음 고 형 :	H	L	L	H	H	H	L	H	L	H	L	H

H는 어두나 다른 H 뒤에서 3의 음고로 발음되고 L 뒤에서는 2의 음고로 발음된다. 어두의 L은 경북방언의 R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음장이 잉여적으로 붙기도 한다.

위의 중세국어에서 기본적 성조형(tone pattern)은  $L_0H_0$ 라고 할 수 있고, 그 계승 흔적인 방언형의  $\_ \square \_$  ( $L_0H_0L_0$ )라는 음고형(pitch pattern)은 함경방언에서는 중세국어와 같은 위치에 있었으나 경상방언에서는 한 자리씩 왼쪽으로 옮겨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 서울말 같은 데서는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까지 와 있는 큰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 3. 음장과 성조/음고

위에서 보아온 것을 다시 정리하면 중세 한국어는 성조를 음소로 가지고 있던 언어였다. 어떤 음절이 고조(高調)인가 저조(低調)인가에 따라 단어의 뜻이 분화되는 언어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표준어에서는 그러한 성조, 즉 음고의 기능이 소멸하고 없다. 대신 음장이 운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미, 말했듯이 한국 방언을 구분하면 음고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함경도 대부분(함남 함흥 동쪽 및 원산 일대 제외)과 경상도 전역, 그리고 강원도의 영동 방언권의 강릉 남부지역이다. 강원도 영동지방의 북부와 함경남도의 남쪽 지방이 빠짐으로써 허리가 좀 잘린 형국이지만 이 지역들은 한국의 동반부를 이루고 있어 방언이 크게 양분됨을 알 수 있다.

방언도 고조(高調)와 저조(低調)의 대립으로 나타나는데 함경도방언과 경상도방언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함경도방언에서는 저조인 단어가 경상도방언에서는 고조로 나타난다든가, 2음절어의 경우 함경도방언에는 고고(HH)조가 없는 대신 경상도방언에는 저저(LL)조가 없다는 등 구체적인 단어에서의 실현에는 차이를 보이는 수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차이보다 이들 방언이 음고를 음소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음고 하나로 어의(語義)가 분화되는 최소대립어(minimal pair)의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는 같은 방언 안에서도 차이가 있어 좀더 복잡한 양상을 띠나 이를 단순화하면 대체로 (1)이 함경도방언의 예며 (2)가 경상도방언의 예다(음절 위의 점이 고조를 나타낸다.)

- (1) a. 말(馬) / 말(斗, 言)  
 b. 배(梨) / 배(腹)  
 (2) a. 말(言) / 말(馬, 斗)  
 b. 배(倍) / 배(梨, 腹)

음고를 가진 지역은 음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마찬가지로 음고를 가지지 않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그 대신 음장을 음소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음고와 음장은 서로 상대 지역을 침해함이 없이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는 셈이다. 그런데 음고를 가진 지역에서도 음장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 강원도 영동방언의 남부 지역이 그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방언은 예문 (3)과 (4)에서 보듯이 고저(음고)는 고저대로, 음장은 음장대로 어의를 분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3a)에서 보면 '말'[斗]이 '말'[馬]과는 고저로 대립되며, '말':[言]과는 음장으로 대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예문 (4b)에서는 장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고저에 의해 다시 의미가 분화되는 것도 볼 수 있고, (4c)에서는 다같이 고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시 음장에 의해 의미 분화를 일으키는 예를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다른 방언에는 없는 현상으로 이 방언이 음고와 동시에 음장을 가진 언어임을 일깨워 준다.

- (3) a. 말(斗) / 말(馬) / 말:(言)  
 b. 배(腹) / 배(梨) / 배:(倍)  
 (4) a. 눈(眼) / 눈:(雪)  
 b. 자:(尺) / 자:(저 아이)  
 c. 보(가위바위보의) / 보:(褌)

그런데 음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서 한결같이 음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음고도 음장도 다 없는 지역이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그 대표적 지역이며 북한의 비고저(방언) 지역 여기저기에도 그러한 지역이 산재해 있다. 거기다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고와 음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보면 음고와 관련하여 한국 방언은 양분된다고 하기보다 사분(四分)된다고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그러나 보통 고저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하여 양분하는 체계를 논위한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서는 음장이 점차 변별력을 잃어 가는데 그것이 확대되면 그야말로 고저의 유무만으로 한국 방언이 양분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음고 현상은 비고저 방언의 화자들에게는 상당히 거칠게 들린다. 흔히 보통 이야기도 싸움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들 한다. 음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처럼 강한 인상의 차이를 말하는 일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음고의 유무가 그만큼 일반 언중들에게도 강하게 구분된다는 뜻이다. 한국 방언을 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저의 유무로만 양분하는 근거가 여기에서도 찾아진다고 하겠다.